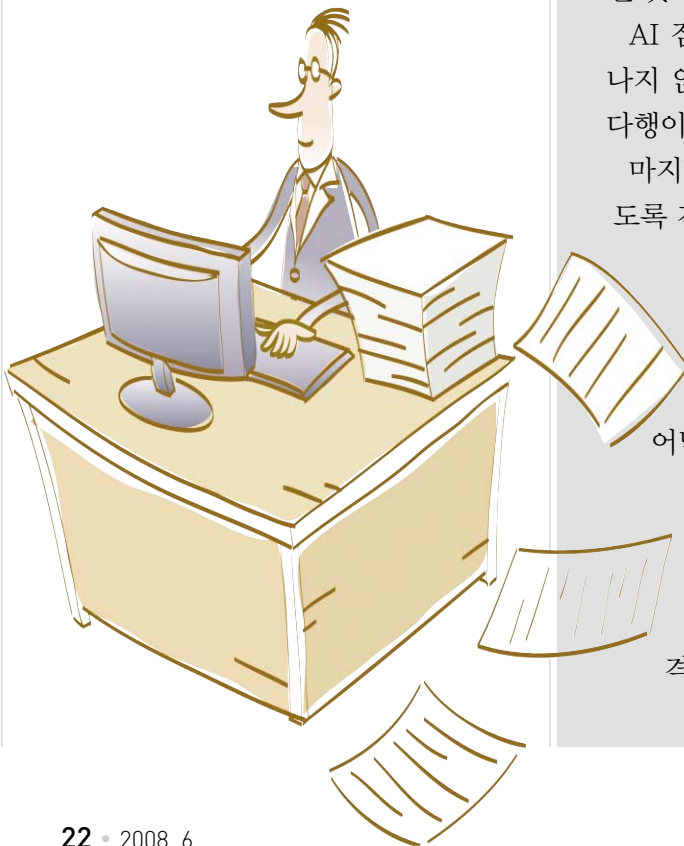


AI발생신고 주춤 닭고기 소비회복 서둘러야...



서성배 회장
(사)한국계육협회



전국을 강타하며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튀어나오던 AI의심 신고가 지난 5월 12일 이후 15일 동안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일단 소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 신고건수 총 68건 중 42건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정도로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돼 방역당국을 당혹케 했던 AI가 그나마 진정을 보이게 된 것은 방역당국을 비롯해 가금관련업계가 AI의 확산방지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발생·비발생 농가에 대한 끊임없는 예찰 활동과 닭·오리 운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출하제한 관리 강화 그리고 지방 5일장 등 재래시장에 대한 닭·오리 판매실태 점검 등이 큰 몫을 해낸 것으로 분석된다.

AI 잠복기가 최장 20여일로 아직 보름밖에 지나지 않아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까지 더 이상의 추가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우리업계에 있어서는 AI의 발생을 종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과제는 급감한 닭고기 소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금산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 축산업계는 사료가격, 유류가격, 인건비 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연초 만해도 이문제로 업계 전체가 시끄러웠지만, AI·광우병파동에 따른 돼지가격인상 등으로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은 무대 뒤로 숨어버렸다.

그러나 이는 잠시 감춰진 것일뿐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우리 육계관련업계는 그 심각성이 더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AI파동으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크게 둔화되고 닭고기를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는 닭고기 소비가 눈이 치켜떠질 정도로 급감하는 서너 차례의 경험을 맛보았다.

그 첫 번째는 AI발생농장의 살처분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의 AI감염 의심 보도(오보)이고, 수도권 및 서울에서 AI가 발생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이다.

이것이 닭고기 소비를 70%로, 다시 50%이하로 급감시킨 원인들이다.

AI의 추가발생이 줄어들고 AI와 관련된 보도가 주춤하면서 조금씩 소비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뚜렷한 회복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도 닭고기 소비촉진을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일부 대기업들도 닭고기 소비확대에 동참할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올해 발생한 AI의 파장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에게 준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소비자들의 뇌리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올해는 닭고기, 오리고기 소비회복을 위해 많은 홍보비가 투입되어 후라이드 등 치킨점포는 일부 되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대형할인마트, 슈퍼마켓, 단체급식 등에서 닭고기 판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시간은 없다. 하루라도 빨리 소비자들의 인식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복(伏)대목 경기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시에 현 국면을 전환시키고 조기에 닭고기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닭고기 생산비 급등 등 우리업계에 직면한 또 다른 현안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의 AI로 인한 후유증이 너무 극심해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우리업계는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